

## 또 다른 어두움의 맞바꿈 : 동성애 (by 존 파이퍼)

(본 설교는 1998년 10월 11일과 10월 1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설교이며 여기에는 편의상 한 페이지에 함께 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

### 1998년 10월 11일 설교 (Part 1)

놀라운 관련성

로마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24절~2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이유에서 동성애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동성애 성직자들의 문제를 주제로 한 "히어 아이 스탠드"라는 회의가 ELCA에서 있었습니다(스타 트리뷴, 1998년 10월 10일). 스타 트리뷴 지의 1면에는, 울타리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와이오밍 대학의 한 동성애 학생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8월에는 전 세계의 성공회 주교 641명이 영국 캔터버리의 람베스 회의에 모여서, 동성애가 "성경과 모순되는" 관습이라고 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USA 투데이, 뉴욕 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는 850명의 전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담은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엑소더스 회의에 모인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미네소타에서는 동성애자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관한 사법 소송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크고 작은 주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제로는, 바로 우리 교회에 동성애의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동성애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았으며 우리 또한 생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동성애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약에 기록된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헌신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동성애 관계와는 상관이 없고 난잡하거나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동성애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자는 합법적이고 후자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신약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게 되는 동성애적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신약은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 성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Paul Jewett, Interpretation, 1985년 4월, p.210)"

단순히 동성애 관계를 하는 이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인가?

상기 성경 본문과 관련하여, 1:26~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성애자들이 그들의 순리를 버리고 그들에게 순리가 아닌 난잡한 동성애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논쟁의 본질인즉슨,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암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적 관계를 갖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오늘 로마서 본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27 절에 사도 바울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 남자들이 본성적으로 이성애자들이었고 그들의 본성적인 욕구에 거스르고 있었다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미가 매우 강한 문장입니다. 본성적으로 이성애자인 사람이 다른 남자에 대한 욕정에 불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는 이성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령 양성애자들을 염두하고 본문을 기록했다할지라도 이러한 해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양성애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남자에 대해 욕정을 품거나 남자가 여자에 대해 욕정을 품는 것은 모두 (이 해석에 의하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바울이 어느 한쪽이라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순리적인 욕정과 그에 따르는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적 행위만을 비난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27 절 후반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역리"에 대한 헬라어 표현 "ten para phusin"은 당시 헬라 윤리 서적에 쓰인 관용 어구로서, 동성애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이지 이성애자들의 동성애 행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해 동성애 행위 자체가 역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본성적으로 이성애자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않게 동성애 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본성에 반한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대부분의 헬레니즘 문헌에 쓰였던대로, 동성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역리(반본성적)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세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다음 두 주 동안의 계획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목적은 로마서 1 장 24~28 절의 말씀을 가능한 한 확실하고 충실한 해석을 해 드리는 것인데, 오늘은 적용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연이어 할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나서 다음 주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성경적 균형을 위한 기도

이번 두 주장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와 설교자인 제가 성경적 균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의 죄성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가지는 동시에 동성애적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사랑해 줘야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회중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자, 이상숭배자, 간통하는 자, 나약한자, 동성애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자, 술취한 자, 비방하는 자, 사기꾼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 6 장 11 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함께 순결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행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유전적, 호르몬적, 환경적 장애를 싸워 이기면서 말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적 장애를 극복하거나, 그 장애를 품은 상태에서 승리와 기쁨과 금욕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과 용기와 도움과 사랑과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번 반복되는 삼단 논법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6~27 말씀에서 바울이 순리적인 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적이지만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난잡한 이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세 번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봐야만 합니다.

다음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삼단 논법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그 삼단 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과 맞바꿉니다. 우리는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선호합니다.

2 단계: 하나님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 단계: 우리는 성적인 관계에서 타락한 인간 영혼의 내면적, 영적인 상태를 극화하여 외형적, 육체적으로 표출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형상과 맞바꾸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구절을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해 봅시다. 다시 세 번에 걸쳐 바울이 제시한 삼단 논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삼단 논법 - 23~34 절

1 단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었느니라"(23 절)

2 단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24 절)

3 단계: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24 절 후반)

인간들이 그들의 보물인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결과에 따라, 하나님도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십니다. 인류의 성적인 변질은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맞바꿈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삼단 논법 - 25~27 절

1 단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25 절). 이 절은 23 절과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선호하는 "거짓"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2 단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26 절) 이 구절은 24 절과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3 단계: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26 절 후반~27 절). 이 구절은 24 절 후반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가 24 절에서 의미한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동성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단계의 생각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류의 성적 무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적 무질서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지만 동성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삼단 논법 - 28 절

1 단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28 절). 이 절은 23 절, 25 절과 상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 단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28 절 중반). 이 구절은 24 절과 26 절에 상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꾼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3 단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28 절 후반). 이 절은 24 절 후반부와 상응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26 절 후반부와 27 절에 여성, 남성 모두가 동성연애를 추구하는 구절과 상응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적 행위는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적합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 결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네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1. 우리가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간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상과 맞바꿨다는 것입니다(23 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습니다(25 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28 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함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잘 못 돌아가는 이유는 모두 우리의 예배드리지 못함에서 기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성정체성을 치료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2. 동성애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물론 이것뿐 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성적인 변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맞바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에이즈가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 내리신 심판인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이즈뿐만 아니라, 암, 관절염,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헛됨, 그리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 장 18 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요점은 로마서 5 장 15 절~18 절과 8 장 20~23 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고통의 세상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경험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으로 가는 대신에 거룩함과 천국으로 이르는 자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3.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 특별히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동성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배의 변질과 성생활의 변질 간의 심오한 관련성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 장 31~32 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결혼의 서약 속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결합은 순결하고 흠 없고 강렬한 마음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생활의 올바른 질서를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 특히 우리 자신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의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변질된 관계가 우리의 성관계의 변질로 이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 간의 올바른 관계가 결혼 언약 안에서 이성애적인 결합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변질은 이성애적 결합의 붕괴로 표현됩니다.

동성애는 그러한 붕괴의 가장 극한 형태입니다. 언약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성적인 결합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들 자신의 형상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로 인해 남자는 남자의 형상을 구하고 여자는 여자의 형상을 구하면서 동성과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자신의 형상과 맞바꾼 것을 극화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 절과 26 절에서 사용된 같은 의미의 “맞바꿈”을 보십시오)

4. 이제 마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의 치유가 그러하듯이, 동성애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두 번에 걸친 제 설교를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 행위의 부적절함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성애 행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모두 다 안들, 정작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성애이건 이성애이건 이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은 제 목적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정체성이라는 태양계 속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열정이라는 행성들이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을 인공위성으로 대체할 때에는 모든 행성이 각자의 궤도를 이탈하고 목적 없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와이오밍 주의 레라미에서 있었던 매튜 세퍼드의 살인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됨을 자기 높임의 위성과 바꾼 자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역주: 22 살의 학생이 게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결국 사망한 증오범죄사건). 하나님 뜻에 반하여 스스로를 높고 스스로 내리는 결정은 열정의 행성들을 제 궤도에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28 절과 29 절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로마서 1 장 28~29 절 전반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인이 비롯되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 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기록하면서 돈과 부정한 권력을 말합니다. 또 25 절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모든 무질서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지난 주에 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성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인 무질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꾼 것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사회의 태양계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 삼아 공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질량이 없는 위성으로 대체하여 태양의 중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모두 무질서화 되고 썩어가며 파괴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에 보았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 사회, 온 세상 속의 이러한 무질서와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적 영적인 악의 끔찍한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바꾸었다는(23, 25, 28 절) 말씀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이란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회가 모든 종류의 악행, 끔찍한 질병, 그리고 죽음과 파괴 속으로 붕괴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4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26 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욱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그리고 여기 26~27 절에서 동성애 행위를 부끄러운 무질서 가운데 결과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8 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여기 뒤 따르는 세 개의 절(29~31 절)에서 상실한 마음의 21 개의 또 다른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 이성애자,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종교인, 비종교인... 우리 모두는 이 상실한 마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 장 9 절~10 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꾸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만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반란이라 무신론이 아니라 회개와 예배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라고 언급하는 것들은 정말로 모든 문제를 의미합니다. 지난 주 설교에서 저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천재지변까지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꾼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성적 무질서에 대한 유전적인 근원 있다면?

이는 동성애의 근원을 토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성애의 육체적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적인 근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그러한 행위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계가 무질서에 빠졌고 구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 장 20 절~23 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피조물은 더 이상 원래 고안된 방식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바람, 비, 강, 화산, 박테리아, 바이러스, 스위스항공 제트기의 전기회로, 브레이크 라이닝, 맹인 학생이 길을 건너는 동안 횡단보도를 지나 운전한 86 세 된 노인의 심장마비, 제멋대로의 백혈구, 21 번째 염색체의 삼염색체성,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수만 명의 영혼들... 피조물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허무하게 했을까요? 20 절에 답이 있습니다. "희망 안에서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사람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희망 안에서" 허무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허무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꾼 것에 대해 각성 시키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고린도후서 1 장 8 절~9 절) 영광을 회복시키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도된 것입니다.(로마서 8 장 18 절~19 절)

계속 읽어봅시다. 21 절과 22 절에 "...피조물도 썩어짐(=허무함)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은 부활 이전의 피조물의 불완전함과 허무함과 고통을 우리의 변질된 육체와 성정체성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 이전의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생각해뵈던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혼란, 허무함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고통, 혼란, 허무함을 거두지 않으실까요? 그 해답은 23 절에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 모두를 이러한 타락하고 심판받은 피조물의 허무함으로부터 즉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심판의 영향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십니다(로마서 8 장 28 절). 그리고 우리를 단계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 장 9 절-10 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모든 죄지음으로부터의 자유는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첫 열매와 동행하심을 얻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임재는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의 은혜(우리의 성적 무질서에 대한 치유도 포함됩니다!)를 맛보았지만 충만한 온전함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희미한 유리를 통해 보듯 보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지만 나중에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 장 23 절의 내용입니다.

"순리"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성애적인 성정체성의 혼란의 근원이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동성애를 선한 것, 순리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인 세상에서 "순리"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에 일치한다는 것을 뜻하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원인을 구실로 하여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체적 공격성 성향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신체적인 근원이 있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무기력성 성향은 나태와 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신체적인 근원이 있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흥분성 성향은 분열증과 일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성 성향은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성향은 편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독적인 성향은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또는 심각한 흡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는 성향은 격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한 성적욕구는 정욕, 음란물, 혼전관계, 간통, 일부다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영향이 자연의 뿌리에 스며들어 모든 생명을 혼란스럽게 한 이 세상가운데,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근원을 가진 어떤 것도 선하고 순리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근원이 있는 기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반이나 근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순리적이거나 선한 것으로 용인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편협적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성경적인 조언

우선, 우리들 중에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이들을 위한 몇 가지 말씀입니다.

1. 다른 질병이나 장애와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불분명할지라도 자신의 혼란스러운 성적체성의 실제와 고통에 대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혼란스러워진 성적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격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2. 당신의 모든 죄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로마서 1 장 16 절~17 절) 위해서 예수님 한분께만 당신의 믿음을 두십시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만이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최악에 대항하는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당신의 가장 고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여 당신의 삶의 전체를 재정리 하십시오.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꾼 것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을 당신 영혼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욕망의 행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궤도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4.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순결을 위한 모든 인내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로마서 8 장 18 절). 하나님이 모든 싱글(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순결함의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남녀 모두와 건전한 우애관계를 추구하시되 되도록이면 여럿이 만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이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식사나 다른 모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싱글들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둘씩 만나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모일 때 성적이지만 않은 건전한 교제를 나눌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6. 미국에는 **아웃포스트**(역주: 웰스프링과 같이 성과 관계로 상처받은 자를 위한 특수 사역단체)를 비롯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일반인이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통찰, 경험, 격려 그리고 성경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단체를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 전동성애자 **조 홀렛**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함과 사랑 가운데 진리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성적체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이라는 사랑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 부모들을 위한 성경적인 조언

이제는 부모님들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 크리스천 부모로서, 불안정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죽음에는 보통 죄의식이나 실패감, 수치심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였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로마서 1 장 16~17 절)
2. 우리가 우리의 결점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3. 만일 우리의 자녀에게 동성애적 욕구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말해주어야 합니다.

4. 만일 자녀들이 계속하여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면, 자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극도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말씀과 조언을 교회의 교제 가운데에서 구하십시오.

5. 만일 자녀들이 아직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가르침과 어루만짐과 사랑함에 자녀의 성적체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그들이 건강한 성적체성을 가지는데 있어서 그들 삶 속의 강인하고 사랑이 많고 경건한 남성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물론 남성상과 여성상 모두 중요하지만 남성상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경험과 심리학을 통해 아버지(또는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남성)의 영향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정상적인 성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적체성인가? 남자아이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자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자 아이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자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제 최선의 대답은 제가 쓴 책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부흥과개혁사, 송용자 옮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지 레커스 박사가 쓴 "성경의 남성상과 여성상 회복하기(Crossway, 1991)"라는 책의 17 장을 읽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레커스 박사는 크리스천 심리학자로 사우스 캐럴라이나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는 동성애적 행동을 5 살부터 보여 왔던 남자 아이를 이성애자로 이끄는 것에 그의 삶을 받쳐 왔습니다. 특별히 그는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의 제목은 "남성스러운 소년과 여성스러운 소녀 양육하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둘러싼 결혼, 동거, 주택, 고용, 양육, 입양, 교육, 다양성 훈련, 다중문화주의 등의 사회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 문제들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해답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토론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헌법통치사회에서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법을 만들며, 파괴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다수의 적대심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의 권리를 유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짙막한 정치적 소견 또는 신랄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생각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가지의 지침과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이러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사 반응(reflexive recoil)에 둔감해 지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해가 되고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이성간의 결혼과 자녀양육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이기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국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데살로니가전서 3 장 12 절).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열정의 행성들이 원래의 궤도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 존 파이퍼 -

[http://wellspring.kr/200705/the\\_other\\_dark\\_exchange.php](http://wellspring.kr/200705/the_other_dark_exchange.php) <출처 : 웰스프링스>

더 많은 자료: [TVNext.org](http://TVNext.org)